

부모를 면접해서 내가 고를 수 있다면?

이희영 장편소설 『페인트』





책 소개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페인트』는 누구나 어릴 적 한 번쯤 생각해 보지만, 말로는 꺼내지 못한 과감한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버려지는 아이들을 국가의 자식으로 키우며 어느 정도 자란 뒤에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시키는 체제를 마련한다. 상상 속에 남겨 두었던 발상이 소설 속의 현실로 나타날 때 독자들은 쾌감을 느낀다. 하지만 주인공 제누가 처한 상황을 따라가면서 이런 시스템 역시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완벽한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러한 부모는 어디에도 없다. 제누는 결국 답을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 부모 면접을 스스로 거부하고 ‘나’를 찾기 위한 유예 기간을 준 것이다. 제누뿐만 아니라 좋은 아들이 되고 싶은 사랑스러운 아키, 회의적이고 늘 시니컬하지만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노아, 이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가디언 최와 박 등 생생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서로 얽히면서 단숨에 몰입해서 읽게 되는 책이다.

제누는 독자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진다. 좋은 부모란 무엇일까? 부모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 부모를 선택한다면 행복할까? 제누의 물음에 답하면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더 나아가 저출생, 아동 학대, 입양, 영아 유기 등 다양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 또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수업의 초점

1. 질문 중심 수업

학습자 스스로 책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책을 능동적으로 읽고,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상하였다. 다음 활동 단계를 따라 개인 질문, 짝 질문, 모둠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 질문을 고를 수 있다.

순서	활동 단계	활동 내용	질문 개수
1	개인 활동	목독 과정에서 개인 질문 만들기	3개
2	짝 활동	개인 질문을 짝과 나누고 짝 질문 정하기	2개
3	모둠 활동	짝 질문을 모둠에서 나누고 모둠 질문 정하기	1개
4	전체 활동	모둠 질문을 반 전체와 나누고 최종 모둠 질문 정하기	1개

2. 협력적 글쓰기 모형

6~8차시에 진행되는 ‘토의·토론하기’는 협력적 글쓰기 모형의 흐름을 적용한 활동이다. 협력적 글쓰기는 협력 활동을 통해 생각을 넓히고, 글쓰기의 토대를 마련하는 모형이다. 글쓰기는 개인 활동으로 이루어지지만, 모둠 활동으로 충분히 토론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토론은 월드카페 토론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특정 논제에 대한 승패를 나누는 찬반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책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친구들과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것이 활동의 초점이다. 토론을 끝낸 이후에는 정리하는 시간으로 토론한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미니북으로 써 보는 활동을 구상하였다. 상황에 따라 한 편의 글쓰기를 진행해도 무관하다.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기 어려운 학습자들에게는 미니북을 통해 여러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짧은 글이나 창의적인 형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차시	활동		질문 개수
1	읽기 전 활동	[활동 1] 내용 예측하기	활동지
		[활동 2] 사회·문화적 배경 살펴보기	
2	읽기 중 활동	[활동 1] 등장인물에게 공감·반박하면서 읽기	개별 묵독
3		[활동 2] 질문 만들면서 읽기	
4	읽기 후 활동	내용 이해	활동지
5	읽기 후 활동	적용	종이, 카드, 스마트폰
6		토의·토론	활동지
7			전지
8			4절지

●●● 읽기 전 활동

| 1차시 |

활동 1 내용 예측하기

- 책을 읽기 전에 표지를 보고 내용을 예측하여 궁금증을 유발하는 활동이다.
- 표지를 보고 인물의 행동 및 인물 간의 관계를 토대로 내용을 예측해 보도록 한다.

1. 표지를 보고 책의 내용을 예측해 보자.



- 책의 내용을 자유롭게 예측해 보자.
- 제목에서 연상되는 느낌을 말해 보자.

활동 2 사회·문화적 배경 살펴보기

- 책에 담긴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가볍게 생각할 거리를 제시하는 활동이다.
- 제목 '페인트'의 뜻을 설명해 주고, 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2. 출산과 관련된 시대별 홍보 포스터를 보고 포스터에 담긴 사회·문화적 배경을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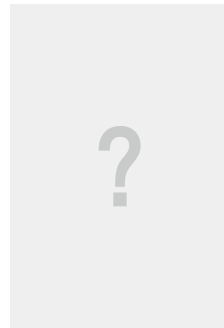
197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미래

활동 1 공감·반박하면서 읽기

- 등장인물의 생각 및 행동에 공감하거나 반박하면서 읽는 활동이다.
- 책을 읽으면서 중간에 밑줄을 치고, 메모를 하면서 능동적으로 읽도록 지도한다.

1. 등장인물에게 공감 혹은 반박하면서 읽어 보자.

면수/구절	공감 혹은 반박

(예시)

면수/구절	공감 혹은 반박
31면 “글쎄, 내가 팔려 가는 느낌이야.”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지만, 정부의 혜택을 보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누가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 자신이 팔려 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제누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36면 “형, 나는 사랑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걸까? 모성애와 부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닐까?
111면 “세상의 모든 부모는 불안정하고 불안한 존재들 아니에요? 그들도 부모 노릇이 처음이잖아요.”	완벽하게 부모의 자격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공감이 된다. 하지만 입장을 하려는 부모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지 않을까? 하나와 해오름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부모로 선택하기에는 좀 불안한 것 같다.

활동 2 질문 만들며 읽기

- 책을 읽은 후에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거리를 질문 형식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 만든 질문은 후에 진행되는 토론 활동의 기초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답변을 요하는 단순한 질문보다 토론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도록 지도한다.

2.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친구들과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거리를 질문으로 적어 보자.

순번	질문
1	
2	
3	

(예시)

순번	질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누가 마지막에 부모 면접을 포기한 까닭은 무엇일까? - 마지막에 제누가 박에게 이름을 물어본 것은 무슨 의미일까? - 제누는 NC 센터 퇴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 -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NC 센터의 아이라면 어떤 부모를 만나고 싶을까? - 아이들을 국가에서 키워 준다면 입양 시스템을 통한 부모가 꼭 필요할까? - 아이들에게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 기르는 양육 시스템이 옳은 것일까? - 좋은 부모란 무엇일까? 예비 부모가 갖춰야 할 자격은 무엇일까? - 아이를 낳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 미래의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 출생률 저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시간이 흘러 출생률이 더 떨어진다면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 읽기 후 활동

| 4차시 |

활동 1 NC 센터 관찰 보고서 쓰기

- NC 센터와 관련된 다소 생소한 용어 및 시스템을 정리하는 활동이다.
- 운영 체계의 경우 줄글이 아니라 그림이나 도표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1. NC 센터 관찰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NC 센터 관찰 보고서	
설립 목적	
입소 대상	
운영 체계	
규칙	

(예시)

NC 센터 관찰 보고서												
설립 목적	저출생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입소 대상	부모가 원치 않는 아이											
운영 체계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메디컬 센터</th> </tr> <tr> <th>NC (국가의 아이들)</th> <th>페인트 (부모 면접)</th> <th>프리 포스터 (예비 양부모)</th> </tr> </thead> <tbody> <tr> <td> <p>퍼스트 센터 (~미취학 아이들)</p> <p>세컨드 센터 (8세~12세)</p> <p>라스트 센터 (13세~19세)</p> </td> <td> <p>1차 면접</p> <p>2차 면접</p> <p>3차 면접</p> <p>합숙</p> </td> <td> <p>서류 심사</p> <p>건강 검진</p> <p>심리 검사</p> <p>홀로그램</p> </td> </tr> <tr> <td> <p>센터 G 센터 B</p> </td> <td></td> <td></td> </tr> </tbody> </table>	메디컬 센터		NC (국가의 아이들)	페인트 (부모 면접)	프리 포스터 (예비 양부모)	<p>퍼스트 센터 (~미취학 아이들)</p> <p>세컨드 센터 (8세~12세)</p> <p>라스트 센터 (13세~19세)</p>	<p>1차 면접</p> <p>2차 면접</p> <p>3차 면접</p> <p>합숙</p>	<p>서류 심사</p> <p>건강 검진</p> <p>심리 검사</p> <p>홀로그램</p>	<p>센터 G 센터 B</p>		
	메디컬 센터											
	NC (국가의 아이들)	페인트 (부모 면접)	프리 포스터 (예비 양부모)									
	<p>퍼스트 센터 (~미취학 아이들)</p> <p>세컨드 센터 (8세~12세)</p> <p>라스트 센터 (13세~19세)</p>	<p>1차 면접</p> <p>2차 면접</p> <p>3차 면접</p> <p>합숙</p>	<p>서류 심사</p> <p>건강 검진</p> <p>심리 검사</p> <p>홀로그램</p>									
<p>센터 G 센터 B</p>												
	<table border="1"> <thead> <tr> <th>실패</th> <th>성공</th> </tr> </thead> <tbody> <tr> <td> <p>퇴소(19세)</p> </td> <td> <p>NC 기록 말소</p> <p>정부 지원금(양육 수당, 연금)</p> <p>만족도 조사</p> <p>파양</p> </td> </tr> </tbody> </table>	실패	성공	<p>퇴소(19세)</p>	<p>NC 기록 말소</p> <p>정부 지원금(양육 수당, 연금)</p> <p>만족도 조사</p> <p>파양</p>							
실패	성공											
<p>퇴소(19세)</p>	<p>NC 기록 말소</p> <p>정부 지원금(양육 수당, 연금)</p> <p>만족도 조사</p> <p>파양</p>											
	<table border="1"> <thead> <tr> <th>사회 진출</th> </tr> </thead> <tbody> <tr> <td></td> </tr> </tbody> </table>	사회 진출										
사회 진출												
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소자의 이름은 입소한 달과 순서에 따라 짓는다. - 예시) 제누 301: 1월에 301번째로 들어온 남자 아이 입소자는 헬퍼와 가디언이 보호, 관찰한다. 페인트 규칙 <table border="1">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살부터 참여할 수 있다. - 부모를 결정하는 선택권은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달려 있다. - 프리 포스터에게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 인터뷰가 끝나면 프리 포스터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한다.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살부터 참여할 수 있다. - 부모를 결정하는 선택권은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달려 있다. - 프리 포스터에게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 인터뷰가 끝나면 프리 포스터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살부터 참여할 수 있다. - 부모를 결정하는 선택권은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달려 있다. - 프리 포스터에게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 인터뷰가 끝나면 프리 포스터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한다. 												

활동 2 등장인물과 가상 면담하기 게임

- 등장인물을 가상으로 면담함으로써 인물의 특징, 가치관, 행동 등을 자연스럽게 탐구할 수 있는 활동이다.
- 소설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면담에 답변하도록 지도한다. 특정 인물을 고를 수도 있고, 여러 인물에게 면담할 질문을 적어도 된다.

2. 등장인물과 가상으로 면담해 보자.

1) 등장인물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적어 보자.

질문	답변

2) 다음 방법에 따라 친구들에게 면담을 하고, 위의 표에 답변을 정리해 보자.

<가상 면담 방법>

- 1 두 명이 만나서 하이파이브를 한다. (게임 시작)
- 2 가위바위보를 한다.
 - 이긴 사람이 질문을 한다. (답변을 위의 표에 정리한다.)
 - 진 사람이 답변을 한다. (소설의 내용에 근거하여 답변한다.)
- 3 면담지를 다 작성하면 자리에 앉는다.

(예시)

질문	답변
제누 씨, 마지막 면접에서 합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음,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 자신한테 시간을 좀 더 주고 싶었어요. 저도 저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더라고요. NC 센터에 계속 있으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누 씨, 열아홉이 되어 NC 센터를 나간다면 무엇을 할 건가요?	다양한 걸 해 보고 싶어요. 그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싶고요. 아 참, 해오름과 하나를 찾아가고 싶어요. 바깥세상의 첫 번째 친구가 되겠네요.
제누 씨, 입양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할 경우, NC 출신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하는데 두렵지 않나요?	물론 두려워요. 하지만 NC 출신에 대한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건, 오직 NC 출신들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분명 기회는 있지 않겠어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겠죠.
아키 씨, 곧 있으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데 기분이 어떨까요?	무척 떨려요.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그래도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 괜찮을 거예요. 많이 사랑하고, 사랑 받고 싶어요.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박 가디언님,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어떠세요?	한결 편안합니다. 훌가분한 느낌이랄까요? 제 안에는 항상 상처받은 작은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럼 센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활동 3 카드 뉴스 만들기

- 책의 내용을 사회적 문제와 연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는 활동이다.
- 소설의 내용과 관련하여 카드 뉴스를 만들도록 지도한다. 활동하기 전에 인터넷 카드 뉴스의 예시를 보여 준다.
- 모둠에 따라 종이 카드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사진 편집기, 컴퓨터(PPT) 등 정보 기자재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

3. 모둠별로 소설의 내용과 관련하여 제누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있을 법한 뉴스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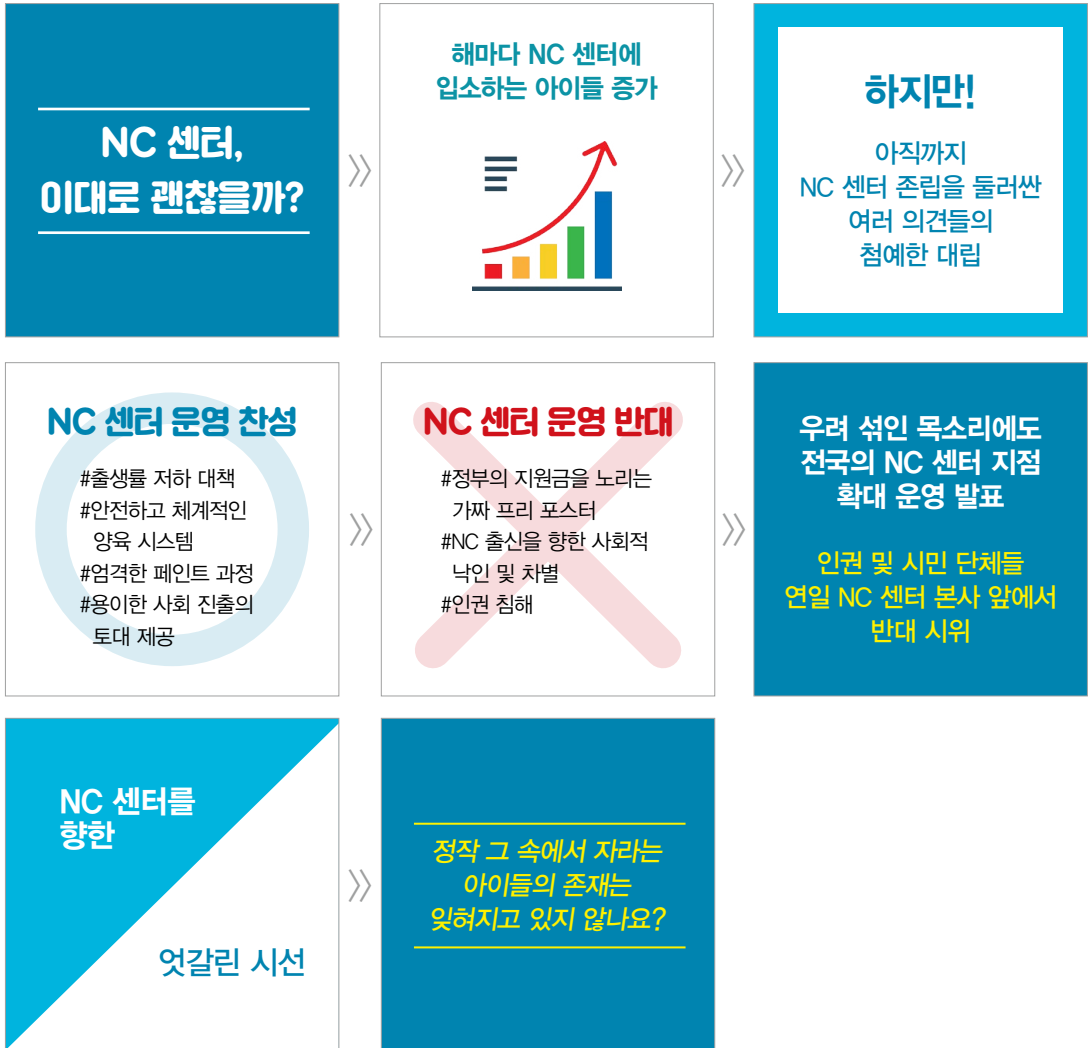
1) 뉴스의 내용을 상상하여 정리해 보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2) 종이 카드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사진 편집기를 사용하여 10장 내외의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자.

3) 모듈별 카드 뉴스를 발표해 보자.

(예시)



활동 4 질문 만들기

- 토론 활동의 주제를 만드는 활동이다. '개인 활동·짝 활동·모둠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질문을 나누고, 핵심 질문을 고를 수 있다.
-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질문을 만들도록 지도한다. 단순한 차원의 질문만 나온다면 모둠 질문을 칠판에 붙이는 과정에서 교사가 질문 1, 2개를 추가하여 사회적 차원의 질문도 생각해 보게 한다.
- 질문 만들기 활동이 끝나면 다음 차시에 하는 월드카페 토론을 위해 모둠 질문에 관한 자료를 찾아 오도록 한다.

4. 책을 읽고 친구들과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적어 보자.

1) 자신이 책을 읽으면서 만든 질문을 적어 보자.

번호	질문
1	
2	
3	

2) 1)의 질문을 짝과 함께 나누고, 모둠 친구들과 더 이야기해 보고 싶은 질문을 3개 골라 보자.

번호	질문
1	
2	
3	

3) 2)의 질문을 모둠원들과 함께 나누고, 반 전체 친구들과 더 이야기해 보고 싶은 질문을 2개 골라 보자. (모둠별 종이에 적어서 칠판에 붙여 보자.)

번호	질문
1	
2	

4) 칠판에 붙인 질문 중에서 모둠에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질문을 한 개 골라서 모둠원들과 이야기해 보자.

▷ 우리 모둠의 질문은?

▷ 나의 생각은? 그 이유는?

(예시)

- 제누가 마지막에 부모 면접을 포기한 까닭은 무엇일까?
- 마지막에 제누가 박에게 이름을 물어본 것은 무슨 의미일까?
- 제누는 NC 센터 퇴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
-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
- 내가 NC 센터의 아이라면 어떤 부모를 만나고 싶을까?
- 아이들을 국가에서 키워 준다면 입양 시스템을 통한 부모가 꼭 필요할까?
- 아이들에게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 기르는 양육 시스템이 옳은 것일까?
- 좋은 부모란 무엇일까? 예비 부모가 갖춰야 할 자격은 무엇일까?
- 아이를 낳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 미래의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 출생률 저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시간이 흘러 출생률이 더 떨어진다면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활동 5 월드카페 토론하기

- 책의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토론 활동이다.
- 정해진 시간에 따라 학생들이 이동하여 여러 질문에 대해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도록 지도한다.

5. 모둠별로 고른 질문에 대해 토론해 보자.

1) 다른 모둠으로 이동하여 자유롭게 토론해 보자.

<월드카페 토론 방법>

- 1) 모둠별로 주인 정하기
 - 주인은 이동하지 않는다.
 - 모둠을 지키면서 새로운 손님이 올 때 모둠 질문을 소개한다.
 - 토론을 진행하며,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다.
- 2) 자유롭게 다른 모둠으로 이동하기(10분씩 3번 이동)
- 3) 모둠 질문에 대해 토론하기
 - 모둠별로 책상에 전지를 깔아 놓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쓰면서 토론한다.

2) 원래 모둠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생각의 변화를 정리해 보자.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생각의 변화	

활동 6 Q&A 미니북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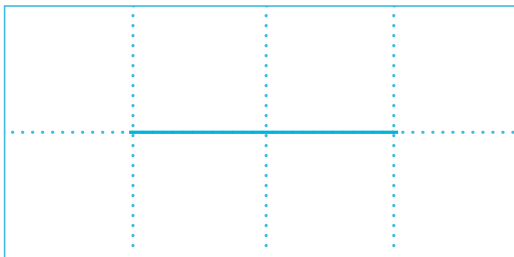
- 이전 활동에서 토론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이다.
-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예시: 논설문, 기사문, 마인드맵, 시, 수필, 편지 등)
- 토론할 때 썼던 모둠별 전지는 교실 옆면이나 뒷벽에 붙여서 활동 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6.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Q&A 미니북'을 만들어 보자.

1) 미니북에 작성할 질문 3개를 골라 보자.

순번	질문
1	
2	
3	

2) 다음 방법에 따라 미니북을 만들어 보자.



<Q&A 미니북 만드는 방법>

- ① 4절지를 접어 미니북을 만든다.
- ② 1면과 8면에 표지를 꾸민다.
(책의 홍보 문구 만들어서 적어 보기)
- ③ 2면, 4면, 6면에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적는다.
- ④ 3면, 5면, 7면에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 예시) 논설문, 기사문, 마인드맵, 만화, 시, 수필, 편지, 광고 등
- ⑤ 미니북을 완성한다.

(예시)

<p>첫 번째 질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40px; width: 100%;"></div> <p>↳ (이름) :</p> <p>↳ (이름) :</p> <p>↳ (이름) :</p>	<p>나의 생각</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width: 100%;"></div>
---	--

<p>첫 번째 질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국가에서 아이들에게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 기르는 양육 시스템이 옳을까? </div> <p>↳ 수한: 아이들에게 번호를 붙여서 기른다니 너무 이상해. 버려진 아이들도 엄연히 인간인데!</p> <p>↳ 지우: 이름 대신 번호를 붙이는 건 많은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p> <p>↳ 미진: 그러면, 아이들에게 번호가 아니라 이름을 붙여서 기르면 그건 옳은 것일까?</p>	<p>나의 생각</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국가에서 아이들에게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 기르는 양육 시스템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유의 존엄과 정체성이 있다. 이를 무시하고 단지 관리와 통제를 위해서 번호로 부르는 것은 아이들을 인격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 </div>
--	---

❖ 더 읽을거리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2540년의 미래를 상상하여 그린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과학의 진보 속에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상실되는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보여 준다. 저출생 시대를 거쳐 가족의 의미가 퇴색된 시대에서 인공 부화를 통해 낳은 아이들을 정부가 관리하고, 계급마저 통제한다. 사람들은 임신, 출산, 양육 등 가족과 관련된 말에 거부감을 가진다.

『멋진 신세계』에 나온 미래와 『페인트』에서 그린 미래를 비교해 보며 현대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 및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체 내용을 읽기 부담스러운 경우, 'tvN 시사/교양 프로그램 <책 읽어드립니다>' 4회를 참고할 수 있다.

